

보서

준비

I

00 | 서문

이 콘텐츠를 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내 자체적으로 연구한 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가끔씩 들어오는 국어 과외로 쓸 자료들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책 또는 콘텐츠의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해설을 통해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책의 구성을 많이 뒤돌아야 했으며, 현재도 자료를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방법을 통해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극을 줄이려고 한다.
결국에는 개념을 통해 문제풀이를 하는 그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한 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내가 하는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애초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고과정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방식에 대해서 취사선택하는, 좀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세 번째로, 수능 국어에 필요한 논리적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논리학에 내용이긴 하다. 물론 위 경험에서 논리학이 절대적이지 않다고는 말했지만, 결국 능력시험인 수능에 논리학 개념은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리학 개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글쓴이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일도 하면서 살고 있기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박을 수도 없다.

혹시라도, 그 놈의 맞지도 않는 국어수업 내용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만 혹시라도, 이 콘텐츠를 통해 치유 받았으면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를 통해
수정과 퇴고를 마친 책을 혹시 팔 수 있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또 그것 나름대로 좋을 것 같다.

01 | 이 책 활용법

이 책은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취사 선택해주길 바란다)

나는 지문을 읽고, 그 다음 문제와 지문을 보면서 1:1 대응 및 추론을 한다. 결국 지문을 2번 읽고, 문제와 선지를 1번 읽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1. 사용하는 기호에 대해

Keyword 지문을 읽거나 보기를 읽을 때 기억에 남기는 주제나 제재다.

- 지문을 읽을 때, 개념과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하다.
- 보기를 읽을 때, 개념이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 및 '특정 단어'를 기억한다.

REMARK 지문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 확인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다.

- 지문의 경우, 적용된 '논리학, 기호학' 내용을 정리한다.
- 문제를 풀 때, 출제원리와 연관되어 있는 '논리학' 내용을 정리한다.

2. [들어가기 전]에 활용법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글을 구조화를 한다.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를 풀기 전에 글을 읽으면서, 내가 구조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적힌 도구를 확인하고, 내가 구조화한 것을 통해 글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해보자.

특정 내용에 형광펜을 치는 것	주요 내용
동일한 형광펜으로 반복되는 것	주요 내용의 (변주되는) 반복
동일한 색이지만, 칠해져있지 않고 색 밑줄로 표시되는 것	주요 내용의 주변 내용
동일한 색이지만, 칠해져있지 않고 색 글자로 표시되는 것	주요 내용의 반대되는 내용
다른 색 형광펜	또 다른 주요 내용
원 숫자 (① ② ③)	'순서'에 대한 표시
숫자 + 점 (1. 2. 3.), 혹은 원 글자 (㉠ ㉡ ㉢)	'나열'에 대한 표시

01 ~ 03

[들어가기 전에] 적용예제

들어가기 전에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Keyword 1 '어휘력, 읽기요소'와 '매튜효과'

'어휘력' 관련 학문에서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읽기요소' 관련 학문에서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학에서 '매튜효과'를 통해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1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 ㉠-2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Keyword 2 '매튜효과'와 매튜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것'

- ㉠-1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름
 -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름
- ㉠-2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Keyword 3 매튜효과로 설명하는 연구의 의미 (혹은 가치)

REMARK 1 부분과 전체 관계를 확인하자.

‘어휘력’은 ‘읽기요소’의 한 부분으로, 첫 문단에서 ‘읽기요소’를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으로 정리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어휘력’에 관련하여 정리했으며, 세 번째 문단에서 ‘읽기요소’로 확장했다.

이처럼 개념들 및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REMARK 2 꼭 [들어가기 전에] 읽고 문제를 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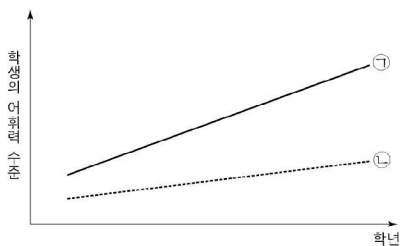
[들어가기 전에]는 글을 구조화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구조화를 통한 지문독해에 대해서 연습하고 이후, 문제를 풀어서 자신이 얼마나 글을 구조화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문제의 답의 경우 [지문 마무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출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3. <보기>의 관점에서 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3. [해설] 활용법

[해설]은 지문에서 선지의 근거를 일일이 표시했다.

일반적으로 내용일치 및 단순추론 문제는 1:1대응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1:1을 대응을 선지와 지문에 동일한 형광펜을 표시하여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형광펜 사용



동일 색으로 칠해진 선지의 근거 표시

두 줄 취소선



선지의 틀린 점을 표시

해당 콘텐츠 활용 방법

- 형광펜 된 지문의 앞뒤를 보면서 문맥을 확인하거나
-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글의 구조 관련된 표현들을 확인하거나
- 선지와 지문에서의 근거 문장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1 ~ 03

[해설] 적용예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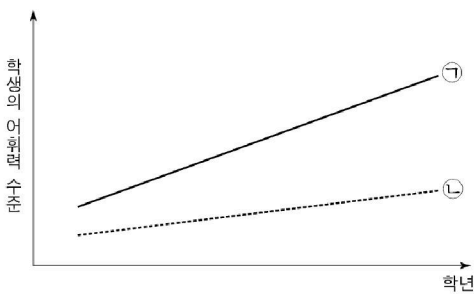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1번 문제의 '㉠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REMARK 4 수식표현과 수식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프 해석>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그래프 차이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두 그래프의 시작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학년'(동일한 x좌표)에서 '학생의 어휘력 수준'이 다르다(다른 y좌표). 두 번째로는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동일 '학년' 변화폭에 대해, '학생의 어휘력 수준'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동일 학년이 지난 동안 더 많은 어휘력을 상승시키며, 이와 같은 상승 차이가 두 학생간의 어휘력 격차로 이어진다.

REMARK 5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를 꼭 분석해보자.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1번의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1번의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④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1번의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3. <보기>의 관점에서 ④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번의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4. [지문 마무리] 활용법

지문 마무리의 경우,

해설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동일한 색으로 칠한 지문독해 자료와 선지에 잘못된 부분을 표시한 정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문독해 자료에서는, 전체적인 문제가 지문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답지에서는, 선지의 틀린 점을 확인하면서 선지에서 문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 03

[지문 마무리] 적용예제

지문 마무리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A]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REMARK 6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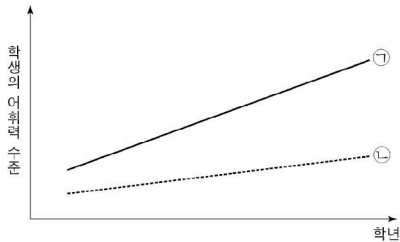
지문에 표시한 부분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다.
3문제에 불과하지만, 지문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결국,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한다.

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읽기 능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자능의 차이 때문이다.
-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3.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독서

문식

II

02

수능 독서란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본질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독서의 방법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독서의 태도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 형성하기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해당 [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의 12페이지에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수능 국어의 독서의 본질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1. 독서란 무엇인가?

본질은 '本 근본 본 質 바탕 질'

뜻은 '사물(事物)이나 현상(現象)에 내재(內在)하는 근본적(根本的)인 성질(性質). 본바탕.'

즉, 독서의 본질이라는 것은 '독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원에서 정리한 내용이며,
독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수능 국어에서의 독서 문제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다.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 이 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서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 동일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태도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 형성하기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독서의 태도 역시 독서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 형성하기~~
 ≍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 자신에 맞는 목적을 확인하고, 독서를 실천한다.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 읽은 글을 활용한다. 즉, 자신의 입장에서 내용을 재구성하기도 하며, 나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에도 적용한다.

이를 정리하면서 확인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독서의 목적을 확인한다. → ②글을 읽는다. → ③읽은 글을 적용한다.

2. 독서의 방법

독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는 독서의 방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다섯가지 방법을 분류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사실적 사고]

-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추론적 사고]

- 추론적 사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적용: 사고의 확장]

-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독서의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사실적 사고] → [추론적 사고] → [적용: 사고의 확장]

독서의 본질에서

[적용: 사고의 확장]은 ‘자신의 입장에서 내용을 재구성하기도 하며, 나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에도 적용한다.’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을 활용하기’전에,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가 있다.

이 독서의 방법들과 관련된 사고는 ‘①독서의 목적을 확인한다. → ②글을 읽는다.’과 연관이 있다.

‘독서의 방법’의 세부적은 내용을 한 페이지로 짧게 정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사실적 사고와 관련된 독서 방법론을 정리할 것이다.

글을 다양한 방법 중에서 <보기>를 통해 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보기>를 구조화하고, <보기>를 통해 특정 관점을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추론은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 분석’이 끝나고, ‘제 4장. 추론분석’을 통해 정리할 것이다.

3. 선택적 읽기: 쉬운 것에 집중하자

분명 독서의 본질에서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전략을 말한다면, ‘쉬운 것에 집중하자’다.

사람이 단기로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개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정보 덩어리를 최대한 적은 정보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방법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 어려운 단어를 정보 묶음 덩어리의 핵으로 사용합니다만... 역설적이게도 뇌는 어려운 정보를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해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정보와 마주쳤을 때, 사람은 그 정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수능장에서 글을 읽을 때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단어를 접하게 되면, 수험생 분들은 순간 착각을 경험하게 되고, 글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착각이 더 심하게 오면, 흔히들 말하는 뇌 정지를 겪게 됩니다. 뇌 정지를 겪더라도 수험생 분들은 보통 다시 글을 읽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뇌는 그 어려운 정보에 같은 방식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단어를 피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REMARK 1 다시 말하자면, 쉬운 것에 집중하자.

금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담배를 안 피면 입이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을 대신하게 위해, 금연하시는 분들은 사탕을 입에 물곤 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건형성]

다르게 말해보죠. 글을 읽다가 수험생 분들은 어려운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집중하는 것에서 멀어지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대신 집중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쉬운 단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예제 1]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일종의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이 문장에서 ‘물가 경직성’과 ‘환율의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괜히 이런 단어들에 현혹되지 말고, 쉬운 단어에 집중하죠. ① ‘물가 경직성’과 ‘오버슈팅’ 중간에 따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물가 경직성이 오버슈팅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② 통화는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고, ③ 경제 충격을 장기와 단기로 조정한다는 말로부터 경제충격을 다룰 때 시간의 길이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REMARK 2 어려운 단어를 처리할 때, ‘치환’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문제가 되는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쉽게 안 되겠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치환입니다.

즉, 지문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들을 ‘A’, ‘B’ 같은 치환하여 주변부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환하는 전략은 보조적인 전략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된 전략은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를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만으로 이해하기 힘들니 아래 있는 분석 예제2 을 통해 경험해보죠.

분석 예제 2] 선함과 후함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선함적 인식이라 일컬어, 그 원천을 후함적으로, 곧 경험에서 갖는 경험적 인식과 구별된다.

쉬운 것을 기반으로 어려운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어려운 표현은 ‘선함’이라는 표현과 ‘후함’이라는 표현이다. 이것을 A와 B로 치환한 문장은 아래와 같다.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A적 인식이라 일컬어, 그 원천을 B적으로, 곧 경험에서 갖는 경험적 인식과 구별된다.

‘B적’이라는 표현에 ‘경험에서 갖는 경험적 인식’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B는 경험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구별되는 A는 경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3 제대로 읽자

이 장에서는 [사실적 사고]에 관한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 글의 명시적 정보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다.
-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지문을 나누면서 제대로 읽자

국어는 지문과 문제(선지)로 구분된다.

지문은 많은 정보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 번에 완벽하게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눠서 읽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태도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REMARK 1 지문을 나누는 기준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독서의 본질’은 그 목적을 확인하는 것을 가장 우선이라 말했다.

마찬가지로 지문을 나누었다면, 그 지문을 나눈 기준을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한다.

2. 적용된 ‘관계’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지문 및 선지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특정 현상을 설명할 때 여러 관계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를 우리의 언어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의 관계만 제시될 경우에는 쉽게 그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 관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예시를 보고 ‘관계’를 분리하여 글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할 것이며, 적용된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10 ~ 1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0~13

들어가기 전에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Keyword 1 문제와 해결책

분류	설명	단어
문제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혈액 응고
해결책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	비타민 K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①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②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③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②'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①'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Keyword 2 활성화되는 대상의 순서

- ① 여러 혈액 응고인자
- ② '프로트롬빈 → 트롬빈'
- ③ '피브리노겐 → 피브린': 트롬빈이 하는 일

Keyword 3 활성화 과정

- ① '카르복실화(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
- ② '칼슘 이온과의 결합'

Keyword 4 '전체'와 '부분' : '활성화되는 대상의 순서'와 '활성화 과정'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①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②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①K1은 간세포에서, ②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Keyword 5 구분의 세분화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구분	비타민 K1	비타민 K2
합성 위치	식물	동물, 미생물 발효
주로 활성화되는 위치	간세포	그 외의 세포
기능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	또 다른 중요한 기능 :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

Keyword 6 부작용

칼슘의

: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

역설

: ①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②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Keyword 7 결핍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

1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1. 칼슘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12.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해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번의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먼저, 혈전이 형성되려면 먼저 섬유소 그물이 형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혈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야 한다. 혈병은 '섬유소 그물(피브린이 모인 것)'과 '혈소판 마개(혈소판이 응집된 것)' 뭉친 것이다. 해당 선지에서는 섬유소 그물이 뭉치면 혈액 손실을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문과 맞지 않는다.

10번의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10번의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10번의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Keyword 8 혈병 발생 순서

① 섬유소 그물, 혈소판 마개 ② 혈병

Keyword 9 덧셈 관계

① Σ 피브린 = 섬유소 그물 ② Σ 혈소판 = 혈소판 마개 ③ 섬유소 그물 + 혈소판 마개 = 혈병

REMARK 2 적용된 '관계'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해당 지문에서 '혈액손실을 막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적용되는 관계는 '순서관계'와 '덧셈관계'다.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읽는다면, 제시된 정보를 제대로 정리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문에서 정리된 내용을 단순히 '혈액손실 막는 현상'이라고 뭉뚱그려서 인식하고, 세부적인 과정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된 '관계'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젠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12번의 '㉔ ㉕은 ㉑과 달라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Keyword 2 활성화되는 대상의 순서

- ① 여러 혈액 응고인자 ② '프로트롬빈 → 트롬빈'
- ③ '피브리노젠 → 피브린': 트롬빈이 하는 일

Keyword 3 활성화 과정

- ① '카르복실화(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 ②' 칼슘 이온과의 결합

Keyword 4 '전체'와 '부분' : '활성화되는 대상의 순서'와 '활성화 과정'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 (나) 플라스미노젠 활성화제: 피브리노젠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젠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가)는 모두 피브리노젠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가)에서는 카르복실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활성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0번의 '㉤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3번의 '㉠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11. 칼슘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12.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과 ㉣: 첫 번째 문단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실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Keyword 10

[순서관계] ㉠카르복실화(비타민 K) ㉡카르복실화된 표적 단백질과 칼슘이온 결합 ㉢ 표적 단백질 활성화

㉤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지문 마무리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리인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1.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12.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가)에서는 카르복실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활성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MARK 3 글을 제대로 읽으면 수능 국어 문제는 다 맞춘다.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작점인 [사실적 사고]에서 필요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 자신에 맞는 목적을 확인하고, 독서를 실천한다.

-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문학

문석

III

05 수능 문학이란

구분	학습 방법
문학의 본질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기
	문학과 인접 분야(다른 형식의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문화적 현상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기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기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기
문학에 대한 태도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기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해당 [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의 19페이지에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수능 국어의 문학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1. 문학의 기초

문학의 본질에 관한 문장을 분석하면

1. 문학에는 인식적, 윤리적, 기능이 있으며
2. 해당 기능들을 중심으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의 효용과 가치는 인간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공감]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수양]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이는 문학이 한 개인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며

주관적인 자기 해석이 아닌, 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해석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능 문학을 시작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문학에서 글쓴이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글쓴이는 이를 절대로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마치 그 '의도'를 이야기로 포장하여 선물로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의도'를 불분명하게 전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야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포장된 선물을 볼 때 우리가 그 선물의 내용물을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의도를 포장하고 있는 이야기 뭉텅이를 보면서 우리는 글쓴이의 의도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상상한다.

이와 같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 하는 것이 글쓴이의 목적이다.

그래서 문학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도’를 파악을 위해 긍정-부정의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2. 이야기의 형태: 내용적 문제

우리가 굳이 국어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분석하지 않더라도 정말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눈을 떼지 않고 본다. 아니면 진짜 망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볼 때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린다. 어떤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분명 비평을 배우지 않았어도 재미있음과 재미없음, 좋은 작품과 별로인 작품을 구분한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의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누군가의 손에서 재구성되어 작품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내용’ 혹은 ‘사건’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도 이런 내용적인 것들, 우리가 겪는 사건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로 만든다.

3. 이야기의 형태: 형식적 문제

살아가다가 문득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도저히 깨지 않는다. 혹은 하루가 좋게 흘러갈 때는 그 날 아침잠이 확실히 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문득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쟁영화에서 여친 사진을 보면서 ‘난 집에 돌아가면 결혼할거야’를 말하는 친구들이 집에 못 돌아간단든지, 밝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면 무슨 일이 생긴단든지, 혹은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작은 사건들이 모여야 한단든지... 이처럼 패턴이 존재하고, 문학에서는 이런 정형화된 패턴이 존재한다.

수능 문학에서도 이 패턴에 관한 문제를 낸다.

REMARK 1 문학 문제를 풀 때,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를 구분하자.

어느 성격의 문제인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지며
해당 문제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를 구분해야만 한다.

06

소설의 내용적 문제

1.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물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물론 인물의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에게는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인물과 사건, 배경을 통해 전달된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인물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REMARK 1 인물을 따라가야 한다.

인물의 행동은 중요사건으로 이어지며,

작가의 의도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2.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은 표시하면서 읽어야 한다.

고전소설이 적힌 시대에는 한 개인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은 많다.

별호(別號), 명호(名號), 외호(外號)

계급(階級)과 입신양명에 따른 관직(官職) 등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표현들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지금의 시대에서 이같은 표현들은 정말 생소하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인물의 이름들을 확인해야 한다.

REMARK 2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표시하면서 읽자.

10 ~ 13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별컸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휙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헐 자식, **내가** **엠펜***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종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 증종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베풀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찰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퐁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언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갈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앵피(MP) : 미군 헌병.

Keyword 1

○ 방삼복

△ 서 주사

□ 방삼복의 아내

◇ 백 주사

⬠ 백 주사의 아들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말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힐 자식, ㉠내가 엠피*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늠이 살아나구, 살 늠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28번의 ‘㉡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28번의 ‘㉢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D]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28번의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방삼복이 인맥에 대해서 나불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나불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사람은 ‘백주사’이며, 동상자는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서 오답을 만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8번의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30번의 ‘① ④: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30번의 ‘② ⑥: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잡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앵피(MP) : 미군 헌병.

28번의 '㉠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백주사이며, 방삼복은 이 말을 듣고 있다. 대상을 바꿈으로서 오답을 구성했다.

30번의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게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백주사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고향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따라서 고향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30번의 '㉣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30번의 '㉤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REMARK 1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인물을 따라가야 한다.

문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식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문제에서

대상, 다시 말해 인물을 바꾸면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

(예시: 28번의 1번 선지, 28번의 4번 선지)

혹은 인물과 연결된 사건이나 속성을 바꾸어서 오답을 유도하기도 한다.

(예시: 30번의 3번 선지)

이와 같은, 오답을 예방하는 방법은

인물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여

소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말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종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증종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 광목 여섯 필
- 고무신 스물세 켤레
-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 빨랫비누 세 귀작
- 양말 오십 타
- 정종 열세 병
-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짧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D]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놓는
└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E]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단던 코빼똥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이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잡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 미군 헌병.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 방삼복이 인맥에 대해서 나불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나불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사람은 '백주사'이며, 동상자는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서 오답을 만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게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백주사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고향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따라서 고향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